

남측 의제 대거 반영 '평화 선언' 가능성

한층 밝아진 김위원장

무표정한 전날과 대조... 회담 결실 기대

■ 오늘 발표 '10·4 남북공동선언' 무얼 담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 '2007 남북정상회담'을 결산하는 선언행사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3일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씩 모두 4시간 가까이 소수 배석자만을 두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두 차례 회담으로 공식적인 회담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노 대통령의 '회담결과 만족' 발언

이 전해지자 남측이 제기한 의제 상당부분 반영된 합의문이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오후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 안 해도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점도 양 정상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평화선언'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선언에는 ▲비핵화·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인도적 사

비핵화·군사적 긴장완화 의지 담길 듯 경제협력 확대·인도적 대북지원 방안도

안 등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 분야의 합의내용이 두루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비핵화에 대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데,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다지고 북핵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기에 당장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 보다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핵심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지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적사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식완공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하자는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언급될 수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양 정상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회담의 특성상 이를 합의문에 담는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김 위원장은 하루 전인 2일 평양시내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노 대통령 환영행사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해 그 배경을 놓고 충분한 추측을 낳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위해 오전 9시27분께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 권오규 경제부총리,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재정 통일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과 잇따라 악수했다.

이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등은 영빈관 내 벽에 걸린 대형그림 앞으로 이동, 기념촬영을 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줄곧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수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 대통령과도 약 20cm 정도로 가까워졌고 이 때문에 노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오른손이 노 대통령의 왼쪽 소매 옷깃을 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2일 공식환영 행사 때 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모습이었다. 남북 정상은 기념촬영을 이어 노 대통령이 준비해온 선물을 진기한 영빈관 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노 대통령이 먼저 대형 병풍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김 위원장은 병풍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며 관심을 표실했다.

권 여사를 제외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남북 배석인사들은 곧이어 회담장으로 이동,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다.

TV 화면을 통해 공개된 회담 시작 장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부드러운 모습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양쪽 팔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채 자신의 양손을 잡고 때때로 어깨가 가볍게 들쭉임 정도로 고개를 끄덕여 가며 노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 나갔고 노 대통령도 열린 미소와 함께 두 손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의 부드러운 표정이 긍정적인 회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동취재단



3일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6년 연속 최우수 차, 푸조 307SW HDi

www.peugeot.com

공통버스 모터스(주)

307 SW PEUGEOT

“직접 영접 감사” “환자도 아닌데...”

■ 노대통령-김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

“군사분계선 넘어 육로로 오셔서 의미”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불편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3시간 51분동안 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을 맞이했고, 노 대통령의 평양 첫 날 밤, 육로 방북, 북측 수해 등을 화제로 환담을 하면서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회담과는 달리 북측의 요구로 평양에 파견된 공동취재단 기자들의 취재 접근이 일체 불허했다. 그 때문에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전속 영상팀의 회담 장면 촬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은 정확히 녹취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은 양 정상의 대화 장면도 2분 가량만 공개됐다.

전 날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했던 김 위원장의 이날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김 위

원장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모습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제 스스로 넘으면서 감동을 느꼈다”면서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접 영접” 시의 표명에 “환자도 아닌데”=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영접할 데 대한 노 대통령의 시의 표명에 “환자도 아닌데”라고 특유의 유머 감각을 다시 발휘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회담 첫머리에 노 대통령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아주 성대히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내가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뻘치고 있을 필요 없지요”라고 답해 회담장에 잔잔한 웃음이 일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답은 자신에 대한 외부의 건강이상설을 잘 알고 있으며, 노 대통령을 영접할 때 쇠약해보인다는 남측 언론과 외신보도를 접하고 나온 말로 보인다.

◇“하루 더 머물러 달라”=김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45분 속개된 정상회담 2차 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내일(4일) 오찬을 시간 품을 들어서 편하게 앉아 허리를 풀어놓고 식사하는 게 좋겠다”며 평양 체류일정을 하루 연장할 것을 갑자기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제안에 대해 일단 즉답을 하지 않고 “나보다 더 센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경호, 의전쪽과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참모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오후 4시25분까지 계속된 회담 과정에서 두 정상은 논의를 통해 당초 일정대로 노 대통령이 2박3일의 평양 일정을 소화하고 4일 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제안은 없던 일로 됐다.

김 위원장은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 안 해도 되겠다. 남측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분례대로 합시다”라며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정훈식기자 who@kwangju.co.kr 평양=공동취재단